

尤庵 宋時烈 연구의 현황과 과제

우 경 섭*

-
- I. 緒論
 - II. 尤庵에 대한 認識의 推移
 - 1. 朝鮮後期の 尤庵 認識
 - 2. 日帝強占期の 尤庵 認識
 - 3. 1945년 이후 尤庵 研究의 動向
 - III. 尤庵 研究의 과제
-

I. 緒 論

17세기 조선 사회는 양란 후유증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1592년(선조 25)부터 1637년(인조 15)에 이르는 45년 동안 연이어 일어난 왜란과 호란은 조선왕조의 정치·경제·사회적 토대를 기저로부터 뒤흔들어 놓았다. 특히 國體의 상징인 국왕이 ‘오랑캐’로 폄하하던 청나라에 무릎을 꿇었던 병자호란의 패전은 전통적 華夷論에 입각하여 문화국가임을 자부하던 조선인들에게 치욕적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이때의 역사적 경험은 이후 조선 지식인들의 사상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손상된 자부심의 회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안겨주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尤庵 宋時烈(1607~1689)은 양란 극복의 시대적 과제에 직면했던 17세기 중·후반 조선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크게 주목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에 대한 好惡是非를 막론하고, 17세기 이후 조선 사회에서 송시열이 차지했던 정치·사상적 비중이 실로 대단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대인들을 비롯하여 지금까지도 별다른 異論이 없을 듯하

* 서울대 국사학과강사

다. 또한 송시열이 제기했던 對淸復讎論과 對明義理論의 基調가 18세기 이후에도 연면히 생명력을 유지하며 조선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정신으로 기능하였음 역시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송시열의 정치적 활동 및 이를 뒷받침한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는 비단 17세기 뿐 아니라 조선후기사 연구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II. 尤庵에 대한 認識의 推移

1. 朝鮮後期の 尤庵 認識

송시열이 세상을 떠난 17세기 후반부터 그에 대한 평가는 붕당 간의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붕당정치기 서인·노론의 영수였던 송시열의 정치·사상적 공과에 대한 평가는 각 붕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각 붕당은 自黨의 정치적·학문적 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의도 아래 송시열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개략적인 내용은 송시열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의 삶을 요약한 『숙종실록』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시열의 후계자인 노론들은 그를 ‘東方理學의 嫡傳’이자 효종의 北伐大義를 계승하여 실천한 인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같은 서인에서 분기된 소론의 경우 노론의 견해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그가 학문적 欠缺과 성격의 과격함으로 인해 조정 권력을 좌우하며 폐도를 추구했던 인물로 인식하였다. 반면 노론과 학문적 연원을 달리하는 남인들은 그에 대해 국왕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권력 찬탈을 도모한 이단적·음모적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렸다.¹⁾

17세기 후반 붕당정치의 전개 과정 속에서 각 붕당의 정치·사상적 입장에 따라 형성된 이 같은 평가들은 모두 자신들이 조선 성리학의 정통적 계승자임을 자부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18~19세기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조정 권력을 장악한 노론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정통성을 주장하려는 입장에서 송시열에 대한 추앙에 나섰다. 숙종대 甲戌換局으로 失勢한 남인 및 영조대 李麟佐亂과 乙亥獄事로 밀려난 소론은 서인·노론 정권의 독주와 사상적 권위에 맞서 송시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편찬된 수많은 黨論書 가운데 송시열에 대한 포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점은 송시열이 남긴 정치·사상적 영향이 여전히 실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1) 肅宗實錄 권21, 숙종 15년 6월 戊辰(3일); 肅宗實錄補闕正誤 권21, 숙종 15년 6월 戊辰(3일); 肅宗實錄 권20, 숙종 15년 윤3월 庚戌(13일)

들 당론서에 보이는 송시열 평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송시열이 세상을 떠난 17세기 후반의 봉당적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²⁾

2. 日帝強占期の 尤庵 認識

송시열에 대한 양 극단의 평가가 공존하는 가운데, 조선왕조가 멸망하고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어서 송시열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의 정치·사상적 성격을 해명하는 핵심 주제로서 적지 않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연구의 내용과 논조는 이전과 자못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近代化’의 美名 아래 조선왕조 멸망의 필연성을 입증하려던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조선의 정치적 後進性和 사상적 停滯性을 송시열을 통해 찾아보려 하였다. 黨派性論의 주창자 幣原坦은 1907년 출간한 『韓國政爭志』를 통해 조선시대 정치사의 기본 動因을 ‘私權의 爭奪’로 규정하고, 黨爭을 ‘東西分爭論’과 ‘老少分爭論’으로 나누어 개괄하였다. 그 중 ‘老少分爭論’은 노소분기를 전후한 17세기 중·후반의 정치사를 다룬 것으로, 송시열과 윤희·윤선거의 개인적 관계가 중앙의 권력다툼으로 변진 결과 노·소론이 분기하였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³⁾ 조선 유학사 연구에 진력한 高橋亨은 主氣派를 대표하는 성리학자로서 송시열의 위상을 평가하면서도, ‘조선유학사는 송시열에 이르러 黨人의 편견을 가지고 학설을 세워 다른 학설을 공격했기 때문에, 李滉 당시에 보여지던 순수한 학문적 주장에 접하기 어려운 것이 참으로 유감’이라 주장하였다.⁴⁾ 이러한 견해들은 송시열의 정치·사상적 활동이 지닌 派爭의 성격을 부각시킴으로써, 그가 주도했던 17세기 조선 사회가 黨爭으로 점철되었음을 입증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

한편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통찰한 민족주의 역사학자들 역시 송시열을 비롯한 조선시대 유학자들에게 亡國의 책임을 지웠다. 事大主義와 保守思想인 유학사상이 민족 고유의 독립·진취사상을 압살함으로써 조선의 역사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인식한 申采

2) 18세기 각 봉당의 송시열에 대한 인식은 老論系 인물인 南紀濟가 지은 我我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我我錄은 原客(南人)·驪客(北人)·漢客(少論) 및 저자가 東西分黨 이후 전개된 봉당간의 갈등을 주제로 삼아 토론한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宋時烈에 대한 각 봉당의 시각을 비교·이해하는데 일정한 도움이 된다.

3) 幣原坦, 1907 韓國政爭志, 21~26쪽 및 116~224쪽

4) 高橋亨, 1929 『李朝儒學史に於ける主理派主氣派の發達』, 朝鮮支那文化の研究, 247~256쪽

浩로부터,⁵⁾ 조선시대 수백 년 동안 오직 程朱學을 신봉한 유학자들의 정체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私營派가 아니면 中華嫡傳을 이 땅에 드리우려는 尊華派’라고 비판한 鄭寅普에 이르기까지,⁶⁾ 대부분의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조선시대 성리학을 事大的·停滯的 사상이라 정의하고 유학사상 전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였다. 비록 이들이 송시열을 직접 거론하여 비판한 자료들은 그다지 찾아볼 수 없지만, 조선시대 성리학을 사대주의와 보수주의로 규정된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의 견해는 이후 송시열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큰 영향을 주었다.

조선왕조 멸망 이후 식민사학자들 및 민족주의 사학자들에 이루어진 이상과 같은 논의들은 조선후기의 봉당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近代’와 ‘民族’이라는 기준 아래 내려진 평가라 할 수 있다. 즉 조선시대 여러 당파들이 道學의 계승자를 自任하며 송시열을 평가했던 것과는 달리, 식민사학 혹은 민족주의 역사학 양자 모두 송시열이 조선후기 성리학을 대표하는 인물임을 전제한 뒤, 성리학 자체의 의미를 ‘反近代的’·‘外勢依存的’ 사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제 송시열은 조선 망국의 원인인 당쟁과 성리학을 주도한 인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3. 1945년 이후 尤庵 研究의 動向

해방 이후에도 이상과 같은 역사상은 1960년대 중반까지 별다른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마당에 조선의 정치·사상적 후진성을 상징하는 송시열에 관한 연구가 별다른 의미를 지닐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통설이 개설서 가운데 간략히 언급되었을 따름이다. 예컨대 李丙燾는 1948년 이래의 개설서를 통해 ‘조선후기는 양란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성하지 못한 채 당쟁을 일삼던 시기’라 주장하며, 그 증거로서 현종대 服制論爭 및 숙종대 懷尼是非의 중심에서 있던 송시열의 활동을 거론하였다.⁷⁾

송시열에 대한 새로운 평가는 1960년대 중반 무렵 북벌정책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한국 사회에 일기 시작한 민족주의의 기운 아래 외침에 대한 항거가 역사 연구의 주요 주제로 등장하였고, 그 중의 하나로서 효종대 북벌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송시열

5) 申采浩, 1929 「朝鮮歷史上二千年來第一大事件」, 朝鮮史研究草 (丹齋申采浩先生紀念事業會, 1977 丹齋申采浩全集 改訂版 中, 103~124쪽)

6) 鄭寅普, 1955 「陽明學演論」, 舊園國學散藁, 146~147쪽

7) 李丙燾, 1948 朝鮮史大觀, 391~393쪽 ; 1954 國史大觀 修訂增補版, 386~388쪽

의 역사적 위상 역시 새롭게 평가될 수 있었다. 1965년 權五惇과 金奎聲은 송시열의 傳記를 서술하여 ‘北伐의 化身’으로서 송시열의 활동을 재조명하였고,⁸⁾ 車文燮은 효종대 북벌정책의 추진 과정을 논증하는 가운데 송시열의 역할을 언급하였다.⁹⁾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와 權五惇·李昌教·崔昌圭·趙鍾業 등은 春秋大義에 입각하여 북벌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민족 주체성을 고양시킨 인물로서 송시열 사상의 시대적 의미를 높이 평가하였다.¹⁰⁾ 또한 북벌론을 비롯한 송시열의 활동을 철학사적 관점에서 해명하려는 문제의식 아래 郭信煥을 비롯하여 蔡茂松·柳南相 등에 의하여 송시열의 성리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¹¹⁾

그러나 조선시대 정치사·사상사를 黨爭과 事大主義로 규정된 부정적 인식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한, 북벌정책은 일회성의 돌출적 사건에 불과할 뿐 조선후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북벌론을 제외한 송시열의 정치·사상적 활동에 대한 평가 역시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특히 1968년 日人學者 梶村秀樹는 한국사에 미친 중국의 영향력에 관하여 기술하는 가운데, 송시열을 ‘尊明事大主義者’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의 존명사대주의는 정권 유지를 위한 주자학 교조주의의 일환이자, 새로운 사회경제적 변동을 반영한 신분제 이완에 직면하여 지배층의 요구에 부합하려는 反動思想이라 설명하였다.¹²⁾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여전히 타율성과 정체성을 조선 역사의 특징으로 강조하였던 일제 강점기의 역사관이 자리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전반에 대한 부정적 역사상은 1970년대 조선시대사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차츰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제국주의·민족주의 양측으로부터 조선사의 특징으로 지적받아 온 ‘事大主義論’을 비판하고, 조선 건국이 文化自尊意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한 韓永愚의 저술이 그 예라 할 수 있다.¹³⁾

8) 權五惇, 1965 「宋時烈-禮論에 얽힌 宋子大全-」 韓國의 人物像 4, 239~265쪽 ; 金奎聲, 1965 「黨爭이 얽아간 大老-宋時烈-」 人物韓國史 4, 223~246쪽
 9) 車文燮, 1967·1968 「朝鮮朝 孝宗의 軍備擴充」 上·下 단국대논문집 1·2
 10) 權五惇, 1973 「北伐大義-尤庵 宋時烈先生을 中心으로-」 斯文論叢 1 ; 李昌教, 1973 「尤庵 宋時烈先生의 春秋思想」 國會圖書館報 10-9·10 ; 崔昌圭, 1973 「朝鮮朝 儒學과 韓民族의 主體性」 斯文論叢 1 ; 趙鍾業, 1979 「北伐과 春秋大義」 百濟研究 10
 11) 蔡茂松, 1972 「尤庵哲學思想研究」 斯文學報 1 ; 錢穆, 1976 「宋尤庵學術」 退溪學報 11 ; 郭信煥, 1979 「宋尤庵의 哲學思想研究-直을 中心으로-」 國際大論文集 7 ; 柳南相, 1979 「尤庵 宋時烈의 哲學思想-理氣說을 中心으로-」 논문집 6-1
 12) 梶村秀樹, 1968 「朝鮮思想史における中國」 文化史 (梶村秀樹, 1982 「朝鮮思想史における中國との葛藤」 朝鮮史の構組と思想, 21~28쪽)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대해 李離和는 조선시대 유학사상을 ‘事大主義와 慕華思想’이라 전제한 뒤, 한영우·최창규 등의 연구를 가리켜 ‘복고적·회고적 역사해석’ 내지 ‘김부식 이래 사대사관의 부활’이라 비판하였다. 그리고 북벌정책의 명분으로 제시되었던 ‘尊明排淸論’을 근거로, 송시열 등 ‘북벌론자의 의식을 지배하고 명분을 제공한 것은 사대주의와 모화사상이었으며, 그것은 민족 주체성과 거리가 먼 것’이라 설명하였다. 또한 북벌정책의 성격이 국민적 관심을 외부로 돌리거나 敵對黨色에게 내세울 수 있는 정책적 주장의 일환이었다는 견해와 함께, 북벌론자들에 의한 효종의 他殺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다.¹⁴⁾ 또한 1979년 日人學者 三浦國雄은 송시열의 저술 『朱子大全劄疑』를 검토하는 가운데, ‘피로써 피를 씻는 당쟁의 한 가운데에서 朱子學을 狂信하였던 인물’로 송시열을 묘사하였다.¹⁵⁾

1980년대에 들어서 송시열의 북벌론을 정치사적 관점에서 해명하는 가운데, 북벌의 의미를 서인·노론의 정치적 헤게모니의 장악 과정과 결부시켜 이해하려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李迎春은 ‘조선 후기 성리학의 경직화 및 그 권위 확립에 책임이 있다고 할 尤庵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며, 효종대 송시열의 의도는 북벌정책 자체가 아니라 君德輔養과 民生安定에 있었으며 숙종대에는 老論專制의 大義名분을 장악하는데 있었다고 주장하였다.¹⁶⁾ 그리고 李京燦은 『효종실록』을 토대로 북벌정책의 추진 과정을 서술하며, 민족주의자 효종의 북벌정책이 권력 획득을 염두에 둔 事大·反北伐主義者 송시열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설명하였다.¹⁷⁾

사상사의 관점에서는, 1982년 三浦國雄은 ‘事大·慕華主義論’의 시각에서 송시열의 사상을 평가한 논문을 다시 발표하였다. 조선의 주자학 승배가 ‘東夷 내지 偏邦이라는 열등의식’의 발로라 설명한 三浦國雄은 학문이 아닌 주자의 삶 자체에 매몰되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인물로 송시열의 사상사적 위상을 평가하였다.¹⁸⁾

또한 17세기 조선 사상계의 동향을 진보적·개혁적 성격의 ‘實學’ 사상과 보수적·사대주의적 성격의 朱子學의 대립 구도로 이해하는 가운데, 후자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송시열의 사상에 주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金駿錫의 연구로, 金駿錫은 실학자들의 ‘農民的’·

13) 韓永愚, 1973 鄭道傳思想의 研究, 162~185쪽

14) 李離和, 1975 「北伐論의 思想史的 檢討」, 創作과 批評 10-4

15) 三浦國雄, 1979 「朱子大全劄疑おめぐるって-朝鮮朱子學の一側面」, 森三樹三郎博士頌壽紀念東洋學論叢

16) 李迎春, 1985 「尤菴 宋時烈의 尊周思想」, 淸溪史學 2

17) 李京燦, 1988 「조선 효종조의 북벌운동」, 淸溪史學 5

18) 三浦國雄, 1982 「十七世紀朝鮮における正統と異端-宋時烈と尹鑄-」, 朝鮮學報 102 (李東熙 譯, 1982 「十七世紀 朝鮮에 있어서의 正統과 異端-宋時烈과 尹鑄-」, 民族文化 8, 162~201쪽)

‘近代的’ 지향과 대척점에 서있던 인물로 송시열의 위상을 규정하고, 그가 ‘朱子絶對化’를 통해 양란으로 야기된 지배질서의 위기를 극복하고 勳戚 집단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려 한 인물임을 논증하였다.¹⁹⁾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송시열은 조선의 ‘자주적 근대화’를 가로막은 제일의 公敵으로 자리매김되었다.

한편 1980년대 중반 鄭玉子是 숙종대 大報壇 설립으로 상징되는 조선후기 尊周論의 전개가 그간의 통념과 같이 사대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朝鮮中華主義’라는 문화적 자부심에서 출발한 것임을 입증하며, 조선후기 사회를 이끌어간 시대정신으로서 성리학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삼아 조선후기가 ‘사대주의와 당쟁으로 점철된 시기’라는 부정적 인식을 비판하였는데,²⁰⁾ 이로부터 ‘근대적’ 지향의 대척점으로서 언급되던 송시열의 정치적 활동과 사상적 특징이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될 수 있는 轉機가 마련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와 송시열의 활동과 사상이 지닌 다양한 측면에 관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선 정치사 방면에서 鄭萬祚는 17세기 중반의 정국 동향을 ‘漢黨’과 ‘山黨’의 대립이라는 구도로 설명하는 가운데, ‘山黨’의 영수로서 송시열의 활동을 언급한 바 있으며,²¹⁾ 崔槿默·禹仁秀·金世奉 등은 17세기 중앙정계에 새롭게 등장한 湖西山林에 관한 연구 가운데 송시열의 생애 및 정치·사상적 역할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였다.²²⁾

사상사 방면에서는 송시열의 사상이 지닌 修養論의 특징에 대하여 논한 琴章泰의 연구,²³⁾ 송시열 禮學의 특징에 관하여 서술한 裴相賢의 연구,²⁴⁾ 『心經』 이해를 중심으로 송시열의 성리학설이 지닌 특징을 분석한 李俸珪의 연구,²⁵⁾ 한국 보수주의의 기원을 송시열의 ‘守朱子主義’

19) 金駿錫, 1988 「17세기 畿湖朱子學의 동향-宋時烈의 道統繼承運動-」, 孫寶基博士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 1990 「17세기 正統朱子學派의 政治社會論-宋時烈의 世道政治論과 賦稅制度釐正策-」, 東方學志 67 ; 金駿錫, 1990 「朝鮮後期 國家再造論의 擡頭와 그 展開」,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 鄭玉子, 1985 「大報壇 創設에 관한 研究」,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 1986 「朝鮮後期 文廟祀典의 釐正-中國儒賢의 陞黜에 관련하여-」, 韓國文化 7 ; 1989 「17세기 思想界의 再編과 禮論」, 韓國文化 10 ; 1990 「17세기 전반 禮書의 성립과정-金長生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11 ; 1998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21) 鄭萬祚, 1992 「17世紀 中葉 山林勢力(山黨)의 國政運營論」, 擇窩許善道先生停年紀念論叢 ; 1999 「17세기 중반 漢黨의 정치활동과 國政運營論」, 韓國文化 23
 22) 崔槿默, 1985 「尤庵 宋時烈研究(I)-그의 家系와 他姓氏族-」, 百濟研究 16 ; 禹仁秀, 1992 「17世紀 山林의 勢力 基盤과 政治的 機能」,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 金世奉, 1995 「17世紀 湖西山林勢力 研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3) 琴章泰, 1991 「尤庵의 性理說과 修養論」, 栗谷學 3
 24) 裴相賢, 1992 「尤庵 宋時烈의 禮學攷」, 尤庵思想研究論叢
 25) 李俸珪, 1996 「宋時烈의 性理學說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로부터 찾아보려한 양승태·안외순의 연구,²⁶⁾ 송시열의 異端論이 지닌 특징을 윤희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한 정호훈의 연구,²⁷⁾ 송시열의 사상적 특성과 사회개혁사상을 다룬 고영진의 연구,²⁸⁾ 송시열의 理氣論이 사회사상으로서 異端是非와 尊周論의 배경을 이루었음을 설명한 조성산의 연구²⁹⁾ 등이 근래에 이루어진 주목할 만한 논저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池斗煥은 송시열의 행적과 정치·경제사상에 관한 일련의 논문들을 통하여 송시열 사상이 지닌 진보적 의미를 강조하기도 하였다.³⁰⁾ 그 밖에 최근에 들어와 송시열 정치사상의 본질적 의미를 華夷論의 시각에서 조명한 필자의 줄고가 있다.³¹⁾

Ⅲ. 尤庵 研究의 과제

이상과 같은 연구들을 통해, 송시열의 정치·사상사적 활동과 그 특징이 대략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지적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로, 자료 이용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1970년대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송시열의 年譜 및 行狀·墓誌·語錄 등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문인들이 편찬·찬술한 자료들을 토대로 삼아 이루어졌다. 물론 어떤 인물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할 때 연보 등의 기록이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연보 등의 편찬·찬술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뒤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자료만을 토대로 한 인물의 삶을 복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다. 더구나 송시열의 문인들이 주축을 이룬 노론 세력이 18~19세기 지배층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가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되었던 만큼, 송시열의 연보 등에 후대의 역사인식이 강하게 투영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26) 양승태·안외순, 1999 「한국 보수주의 연구 I : 宋時烈과 한국 보수주의의 기원」 한국정치학회보 33-1

27) 정호훈, 2001 「朝鮮後期 '異端' 論爭과 그 政治思想的 意味 - 17세기 尹鑄의 經書解釋과 宋時烈의 批判」 韓國史學報 10

28) 고영진, 2003 「송시열의 사회개혁사상」 역사문화연구 18

29) 조성산, 2004 「宋時烈의 性理學 이해와 現實觀」 韓國史學報 17

30) 池斗煥, 1999 「尤庵 宋時烈의 社會經濟思想」 韓國學論叢 21 ; 2001 「尤庵 宋時烈의 生涯와 思想」 韓國思想과 文化 12 ; 2001 「尤庵 宋時烈의 政治思想-孝宗代를 中心으로-」 韓國學論叢 23

31) 禹景燮, 2005 「宋時烈의 世道政治思想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2006 「宋時烈의 道統論과 文廟齋正 논의」 韓國文化 37 ; 2006 「宋時烈의 華夷論과 朝鮮中華主義의 성립」 震檀學報 101

이러한 한계들은 1980년대 이후 『宋子大全』에 수록된 상소문과 편지글 등 송시열이 직접 저술한 자료들에 기반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극복되어 갔다. 그러나 개별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만이 부분적으로 검토되었을 뿐, 문집 전반에 걸친 검토 위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다. 송시열 연구의 중심 주제인 효종대 북벌론에 관한 연구의 경우, 『己丑封事』를 비롯한 몇몇 상소문의 분석을 통해 그 성격을 해명하려는 연구가 다수이다. 숙종대 노소분기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자료가 인용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연보와 묘지 등이 핵심 典據로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송시열 사상의 논리적 전개 양상이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17세기라는 역사적 환경 속에서 송시열의 사상이 지닌 시대적 의미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지 못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진전된 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宋子大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1787년(정조 11) 간행된 『宋子大全』은 세 차례에 걸쳐 편찬된 송시열의 문집 중 定本으로서 권위를 지닌 문헌임과 동시에, 18세기 노론정권의 확립이라는 정치적 배경 속에서 편찬·간행된 자료이다. 따라서 『宋子大全』 전반에 대한 검토는 송시열 사상의 究明을 위한 기초를 이룰 뿐 아니라, 『宋子大全』 안에 내포되어 있는 강한 역사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송시열 사상의 시기적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송시열은 선조 말년에 태어나 숙종 전반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83년이라는 긴 생애를 살았던 인물이었다. 더구나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양란의 여파와 명·청 교체의 혼란에 직면하고, 예송과 환국의 정치적 격랑이 휘몰아치던 시기였다. 또한 사상적으로는 16세기 후반 퇴·율에 의해 이룩된 조선 성리학의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변화한 시대적 흐름에 조응하는 새로운 사상의 확립이 요구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사실은 송시열의 생애와 사상에 수많은 굴곡이 있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송시열의 사상이 단지 ‘朱子學에 대한 墨守’ 내지 ‘李珣·金長生 사상의 祖述’로 일관하였다는 전제 아래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명나라 주도의 비교적 안정된 국제질서 속에서 華夷論의 현실적 의미를 체감할 수 없었던 李珣(1536~1584)와 金長生(1548~1631)의 시대와 달리, 송시열은 ‘華夷가 顛倒된’ 시기를 살았던 인물이었다. 더구나 송시열이 활동했던 인조~숙종 연간은 두 차례의 호란, 淸軍의 北京 점령, 南明의 멸망 등 중국 정세의 급박한 변동 가운데 ‘中華’인 명과 ‘夷狄’인 淸의 실체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동요되고, 이에 따라 조선의 正體性 역시 새롭게 설정될 필요를 안고 있던 시기였다.

또한 對淸認識을 중심으로 한 각 붕당의 상이한 時勢觀 및 이에 수반된 대응방식의 차이는 송시열이 속했던 서인·노론과 남인·소론 간에 벌어진 갈등의 주요 원인을 이루었다. 이같은 상황은 붕당정치의 전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각 붕당의 상대편에 대한 시각은 시세 인식의 변화에 상응하여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났고, 그 결과 붕당 간의 갈등 역시 시기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시대 변화에 따른 송시열 사상의 전개 양상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인식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송시열의 정치 활동과 학문 성향을 해석하는 시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20세기 초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송시열은 조선후기 사회의 封建性과 黨派性, 그리고 事大主義를 상징하는 인물로 지목되어 왔다. 필자는 이 같은 평가들에 내재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조선왕조 멸망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으며, 또한 그 해답으로서 송시열이 주도한 성리학파 당쟁이 조선왕조 멸망의 根源을 이루었다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이 등장한 배경으로서 일제 강점기의 식민사학과 민족주의 역사학 양자 모두 ‘弱肉強食’과 ‘優勝劣敗’의 원리를 인류 역사의 보편 법칙으로 인정하는 서구 ‘근대사회’의 산물인 社會進化論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선 역사의 他律性과 停滯性을 강조한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에 대응하여 조선후기 사회의 자주적·진보적 움직임을 찾아보려는 의도 아래 등장한 ‘실학’ 개념은 1930년대 이래 국사학계가 이룬 의미 있는 연구사적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학’의 견지에서 이루어진 연구들 역시 ‘민족’과 ‘근대’라는 20세기의 가치관을 통해 조선후기 사회를 바라보는 가운데, 조선후기 성리학의 역사적 성격을 ‘事大’와 ‘保守’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주도한 송시열의 정치·사상적 활동을 당쟁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며, 망국의 궁극적 책임을 송시열의 성리학과 당쟁에서 찾아보려 하였다.

필자는 20세기 초반의 사건인 조선왕조 멸망의 원인을 17세기까지 소급하여 찾아보려는 위와 같은 인식이 과연 역사학적 관점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이래 송시열 평가의 바탕에 깔린 그 같은 문제의식이 17세기 호란 직후 당대인들이 받았던 정신적 충격 및 새로운 사회를 향한 모색의 방향을 읽어내기에 적합한 틀이 아니며, 또한 당시 사람들이 실제 고민했던 문제들을 捨象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³²⁾ 특히 송시열 연구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는 정치사상에 관한 논저들을 살펴보면, 호란 직후의 상황 속에서

32) 특히 근래에 이루어진 송시열에 관한 일부 연구들이 梶村秀樹·三浦國雄 등의 주장을 문제의식에 대한 검토없이 무비판적으로 인용하는 경향은 심각한 문제라 생각된다.

그가 주장한 言說에 담겨 있는 시대적 고민에 대한 검토는 생략된 채, ‘근대와 봉건’ 혹은 ‘왕권과 신권’의 문제라는 20세기적 관심사만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연구는 송시열의 행적과 역사적 功過에 대한 평가에 앞서, 우선 『宋子大全』을 비롯하여 그가 남긴 텍스트 검토에 보다 면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의 정치·사상적 활동이 지닌 함의를 당대의 역사적 환경 속에서 이해하고 해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즉 송시열의 정치·사상적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그것이 내포한 의미를 그 시대에 즉하여 탐구하는 작업이 그의 공과에 대한 평가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현금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 그에 대한 긍정·부정을 막론하고 새로운 연구사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그 바탕 위에서 조선후기 정치·사상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